

Dubai유, 10개월만에 30달러 육박

석유공사, 2003년 3월13일 이후 최고가격 ... Brent유도 수급불안 여전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10개월만에 배럴당 3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13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21달러 오른 배럴당 29.73달러를 기록했다. 북해산 Brent유 역시 32.08달러로 0.22달러 상승했다.

Dubai유와 북해산 Brent유 모두 2003년 3월13일 30.39달러와 33.57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반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0.37달러 하락한 34.3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국제시장에서 원유 현물가격은 2003년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Dubai유는 2.94달러, Brent유는 3.38달러, WTI는 3.26달러 높은 것이며, 특히 Dubai유는 1달 전보다도 1.63-2.33달러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뉴욕선물시장(NYMEX)의 2월물 WTI 가격과 런던선물시장(IPE)의 Brent유 가격은 각각 0.29달러, 0.39달러 떨어진 34.45달러, 31.37달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장 초반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며 상승하던 국제유가는 차익실현 매물의 출회와 1월 말까지 미국의 날씨가 따뜻할 것이라는 기상예보로 장 후반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Dubai유와 Brent유 현물가격은 여전히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15>